

### 3. 일본 금융 빅뱅의 파장

- (추진 배경)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고 금융시스템은 비효율성 증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
- (주요 내용)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로서 외환 및 자본 거래 자유화와 금융업종간 진입장벽 철폐 등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함
- (파장)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1,200조 엔에 이르는 개인 금융자산중 상당부분이 해외로 유출될 전망이다. 예금의 급격한 유출은 금리 상승과 실질 GD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

#### ○ 추진 배경

- 일본 경제는 8년째 장기 불황에 빠져 있고 금융시스템은 비효율성 증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
  - 그 결과 금융기관의 부도사태가 보험, 증권, 도시은행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, 97년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총액은 76.7조 엔에 이름
- 일본 금융기관의 연쇄적 도산은 안이한 경영관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
  - 8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경영의 틀로 바꾸지 못하고 기존의 경영방식을 고수하였음
  - 그 이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지나친 규제 및 보호가 있었음
- 따라서 일본 정부는 96년 11월에 자유화(free), 공정화(fair), 국제화(global)를 목표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착수함
  - 자유화(free)란 은행과 증권,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한정된 상호 참여만 허용되는 현재의 금융구조를 은행과 증권업간의 영역 구분을 없애는 유럽식 유니버설 बैं킹(Universal Banking)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
  - 공정화(fair)는 투자자가 모든 금융상품의 실제 손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시가 회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임
  - 시장 국제화(global)를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

#### ○ 주요 내용

- 일본의 금융 개혁은 2001년 완료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, 이미 지난 3월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됨
  -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, 보험, 증권을 묶는 거대한 종합금융그룹이 탄생할 수 있게 됨
- 98년 4월부터 외화환전 및 해외자본거래가 자유화되고 5,000만 엔 이상의 주식매매 수수료도 자유롭게 결정됨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에 외화 표시의 예금과 투자를 할 수 있게 됨
  - 일본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1,200조 엔에 이르는 국내 개인금융자산중 50조~100조 엔 정도가 1년이내에 저금리를 피해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전망함
  - 한편 매매수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중소형 증권사의 연쇄 도산이 예상됨

- 연말에는 뮤추얼펀드 시판,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 등이 허용될 예정이며, 99년 하반기에는 은행계 증권사의 업무제한이 철폐되고, 2000년부터는 보험, 은행의 상호 진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
-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거래 및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과 금융 검사·감독체제의 대폭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

< 일본 금융 빅뱅의 주요 내용 >

구분	실시 시기	주요 내용
외환 규제 철폐	98. 4	- 외국환은행만 취급하던 외환업무 자유화 -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예금·투자 자유화 - 외화 환전업무 자유화
新일본은행법	98. 4	-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(금융정책위원회가 최고 의사 결정)
금융지주회사 허용	98. 3	- 자회사 형태로 다른 금융업종 진출 가능, 지주회사 설립시 세제 혜택
자산운용 자유화	98. 12	- 은행 창구에서 투신 판매 허용 - 증권관련 파생상품 규제 전면 폐지 - 투자자 50명 미만의 私募 투신상품 허용
금융 서비스	98. 4 2000.1 98.7 99. 하반기 2000. 하반기	- 5천만 엔 이상 주식 매매 수수료 자유화 - 주식 매매 수수료 완전 자유화 - 손해 보험료를 자유화 - 은행의 증권자회사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 철폐 - 은행과 보험의 상호 진입규제 철폐

○ 확장

- 금년 4월부터 외환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본도피(capital flight)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
- 영국도 79년 외환자유화 실시로 기관투자자의 운용자산 가운데 해외자산의 비중이 10% 수준에서 80년대 후반에는 20%로 상승함
- 현재 비금융부문 소유의 외환 기준 해외예금잔고의 GDP대비 비율은 일본이 0.2%로 미국 0.8%, 독일 1.5%, 영국 6.5%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
- 예금의 해외유출에 따른 금리 상승은 '기업의 부담 가중→경쟁력 감퇴 및 경영 악화→외국인 증시자금 이탈→엔저 가속화'의 요인으로 작용함
-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어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부추겨 엔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엔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
- 예금의 유출은 금리를 상승시키고 실질 GDP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대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함
- 주가·지가 하락 지속과 금융시스템 개혁 부진으로 투자자의 불신이 깊어지면 '자금의 급격한 이탈→해외채권 회수→미국과 아시아 금융시장 대혼란→세계공황'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想定할 수 있음

(정 오 영 oyjoung@hri.co.kr 724-4026)